

사하촌·절집 문화 교류하며 한 넷물로 흘러



운암리당산나무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은 늘 의문 속에 신비로 남아 있게 마련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지만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으로 빠진다 해도 인생처럼 치명적이지 않은 것이 길이다. 좁 해매며 찾아온 길, 마곡사 초입에 들어서자 사찰을 안고 흐르는 형제수 소리가 턱까지 차오른 감증을 걸어냈다. 봄 마곡이라는 말이 있지만 초록이 지친인 여름 마곡도 발만하다. 한 여름으로 접어든 길목이라 아스팔트를 구워내는 햇벌의 열기가 대단했다. 나무그늘 아래 무거운 삶을 머리에 이고 낮잡

에 빠진 아저머니 얼굴에서 평화를 읽어본다. 버섯, 콩, 산나물, 더덕, 여러 가지 약초들이 잡에 빠진 주인 대신 사가라고 말을 붙인다. 이런 느긋함이 세상을 꺼안고 있어서 그대로 살만한 것 아닐까. 태화산 자락은 <정감록>에 나오는 풍수지리상 심승지(十勝之地)의 한 곳으로 유마양수(유마와 양수)간가활만인(維麻兩水之間可活萬人)이라고 하여 유구천과 마곡천이 흐르는 곳으로 나라의 큰 환란이 있을 때 이곳으로 피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알려진 곳이다. 한국전쟁 후 먹을 것이 없던 시절, 이곳에 터를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19 태화산 마곡사

잡으면 먹고 살 수 있다는 풍년이 흘러 하나 둘 화전민들이 모여들고 거대한 촌락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명당의 기가 모아진 곳에 마곡사가 자리를 잡고 있다. 마곡사는 조계종 제6교구 본사로 총남지역 78개 말사를 관장하고 있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하고 고려 명종 2년에 보조 국사가 중건했다. 마곡사 경내를 가로지르는 마곡천을 중심으로 한 남쪽 가람은 수행영역이고, 대광보전을 중심으로 한 북쪽 가람은 교화영역으로 선교양종의 태보산 위치를 확실히 지키고 있다. 극락교를 건너면 마당 한 가운데 라마교 풍의 축조 형식을 한 5층석탑이 우뚝 서 있다. 그 뒤로 후불벽화 백의수월관음도로 장식된 대광보전과 다포계 필적지붕으로 이루어진 대웅

비에서 끈 새끼줄을 가지고 나와 고리를 만들어 이 나무와 저 나무를 연결하여 돌을 매달아 두었다가 거두어 소쟁기 줄로 일 년 동안 쓴다. 오후에는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 풍장을 치면서 부엌, 장독대를 돌며 마당극판을 벌이지요. 저녁에는 장상에 나무를 세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탑집태우기를 합니다. 절집과 함께하는 문화는 배부를 마을에 모셔다 걸고 스님들과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지요. 그나마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요. 5월이면 절집과 마을 사람들이 어울려 신록축제를 합니다. 절집에서 초대를 해주면 탑돌이소리로 하고 김매기소리로 어울림 마당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과거에는 동네가 마곡사보다 번성했는데 지금은 마곡사가 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오래전에 마곡사



일주문



마곡사 경내 전경

5월이면 절집·마을 사람 어울려 '신록축제' 서로 필요한 땅 환지...상생하는 지혜 돋보여 대동계는 이웃간 정 나누는 매개 역할 '톡톡'

보전이 다른 가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참된 나라 깨닫는 기도도량의 깊음을 보여준다. 아름답고 다정스런 산봉우리들을 보고 살아서 그런지 아랫마을 운암리 사람들은 정이 많다. 권재덕 개발위원에게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되어 마곡사 개울에서 혼자 푸르른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리고 수화기에서 나를 찾는 사람이 누구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나그네를 당산나무 아래까지 나와 맞이하는 그의 모습은 60대라고 보기에는 너무 젊었다. 마을 회관을 두고 손님을 집으로 안내하는 속 깊은 정은 뚝배기에 있는 일상이었다. 권재덕 개발위원장은 공주문화원 신하에 예인촌 초대위원으로 추대되어 4년 동안 봉사하고 올해 자리를 넘겨주었다. 8명으로 구성된 권재덕 풍장패를 이끌며 마을의 문화를 이어가는 상쇠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른들의 권유로 풍물을 만지게 되었는데,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보여주지 못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기교를 부리는 예술을 보여주지만, 권재덕 풍장패는 자연스럽게 흥을 돋우어 모두 하나가 되게 합니다. 풍장패는 관객이 하나도 없을마당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사의 처음을 장식하지요. 마을은 음력 1월 14일이 되면 겨우내 손으로

를 가로지르는 다리와 길도 마을사람들이 놓아 주었다. "과거에는 마곡사 땅이 많아 사하촌 사람들이 사할 땅에 집을 짓고 소작농으로 살았지만 서로 필요로 하는 땅을 환지하면서 사유지가 되었지요. 자장 율사가 반했다는 '출고개'의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해탈문과 천왕문이 직선으로 이어지고 대광보전과 대웅전이 3층으로 보이는 경관 좋은 곳이 있어요. 그곳을 사할에 내어 주고, 마을사람들이 지금의 상가지역으로 나왔습니다." 절집과 갈등을 하지 않으려는 마을사람들의 지혜모음을 보는 듯했다. 절집과 소통되는 문화이야기를 하다가 사하촌 사람들은 깊숙이 구겨 넣었던 마음을 자연스럽게 꺼내 놓았다. "어렸을 때 새우잡고 개구리 잡던 상원골계곡과 초등학교 때 소풍가서 놀던 은바위를 잃어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상원골계곡이 관광지가 되면서 사찰에서 마을사람들에게도 입장을 받아 출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옛날에 사하촌 사람들은 버스 가 없던 시절 부처님오신날이 되면 멀리에서 마곡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인방도 내어주고 아침밥까지 먹여 손님을 배웅 했어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길게 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권재덕 개발위원장은 조부모님이 마곡사 명부전을 짓는데 참여했다며 불심을 내 보였다. "부모님은

논, 밭 한 패기도 없는데 팔남매를 낳아 기르셨어요. 어렸을 때 가난해서 실을 많이 받아 마을을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요." 사하촌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데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1973년 산에서 나무를 하다 팔아 전화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마을에 문명을 끌어들었다. 마을에는 1940년경 대동계가 조직되어 지금까지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군대를 가면 차비를 쥐어 주고, 몸이 아파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나눠 준다. 매년 12월 말 한해를 잘 살았다는 자족의미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마을의 문화로 계승되어 오는 풍물패가 흥을 돋우며 웃음을 즐긴다. 사하촌과 절집이 문화적 교류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지낼 때 고기를 제물로 올리지 않는 불교식으로 지낸다. 마을을 돌아 흐르는 시냇물이 사하촌과 마곡사를 한 덩어리로 묶어 놓아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산=김상미(수필가·본지 객원기자)**

풍수지리사 김현수

심법으로 집터·뒷자리 봐줘 "세상 이치 주력 적용시켜야"



운암리에 특별하게 사는 사람 없느냐고 묻자 선풍박기 존옹(88세)을 만나 보라고 했다. 심법(心法)으로 동네 사람들 뒷자리도 봐주고 집터도 봐주고 이쁨도 지어주는 선생을 마곡사 뒷마루에서 만났다. 긴 머리를 묶고 있는 선생의 인상은 초면인 데도 비범인처럼 보였다. 사람의 심리로 꿰뚫어 보는지 내가 팔문을 열기도 전에 남궁담 이야기로 화두를 던졌다. "남궁담은 수토의 힘이 들어 삶은 물, 빼는 흙이 되므로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interview

김동조 지누리 대표

덕(한지)섬유란 무엇인가요?

헬빙 천연섬유소재로 황토보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암모니아, 포름알데이드 등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소취 및 향균기능이 뛰어난 21세기 유망 섬유소재입니다.

덕(한지)섬유와 전통 한지는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전통한지는 주로 수목지나 공예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지의 심미적 효과가 중요하지만, 섬유용 한지의 경우 섬유용으로의 제작이 용이한 작업성과 제직 및 편직에 견딜수 있는 강도와 신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계를 이용하여 한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계한지가 한지 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섬유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계한지는 그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지사(Korean paper yarn)는 무엇인가요?

면사 굵기 40수 이내로 내의를 짤 수 있을 정도의 가는 실입니다. 면과 마의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직편 편직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량소재로서 성분성이 좋아 청량감과 제습기능, 소취기능이 뛰어납니다. 내구성 및 염색성, 내 세탁성 또한 우수합니다. 단 섬유이지만 무유가 없는 필라멘트사의 장점을 유지하여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사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지는 제작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되지 못하고 쓰임새 또한 다양하지 않았었습니다. 한지사의 개발로 다양한 종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섬유패션 소재를 비롯하여 홈텍스타일(침장류, 벽지, 커튼, 카펫 등) 웨딩드레스, 언더웨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 www.jisarang.co.kr